



3면

'신당 창당 강한 자신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2024년 1월 9일 화요일 (음 11월 28일) 제3421호

대표전화 (063)288-9700

'특별자치도' 로 다시 태어난 전북 방산·바이오·스마트팩토리 '올인'

김 지사, 스마트형 공장 나리찬 현장 시찰 나서 나리찬의 성공 계기로 방산·바이오 기업 유치 속도 한층 더 높이기로

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게 될 전북이 지난해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에는 방산과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신미래산업 분야에 올인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차전지 기업 유치 실적을 올린 전북도는 스마트팩토리로 올해 첫 포문을 열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4일 올해 첫 현장시찰지로 익산의 스마트형 공장인 나리찬(김지제조)을 방문, 각계 업체 대표, 도의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스마트팩토리는 김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해 지난해 첫 삼을 쓴 사업이다. 요지는 3년간 대기업 출신 혁신멘트 30여명을 채용, 도내 중소기업체 300여곳의 코디네이터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나리찬은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수혜를 받아 2021년과 2023년 매출이 기존 37억에서 120억원으로 경증 뛰었다.

각각의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

람이 하기 힘든 배추·무 등 각종 채소 박스를 로봇이 들어올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면 배추와 무 등이 레인을 따라 가면서 완성품으로 나오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가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 친환경 사업장으로 바뀐 이 회사에는 '매출 급성장'이라는 대박을 안겨줬다.

도는 이 여세를 몰아 올해 방산과 바이오 기업 유치를 속도 한층 더 높여겠다는 각오다.

이달 안에 방산 관련 국가기관과의 연구·실증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된 앵커기업(중핵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분야 역시 김 지사가 올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 중 하나다.

이로 인해, 8일부터 미국 CES 관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관영 도지사는 내친김에 보스턴을 방문, MIT대학 메카노 바이올로지 랩실을 방문하고,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업체인 모더나 본사도 둘러보며 바이오 산업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직접 올 초 사무실에서 방산과 함께 바이오 기업 유치에 성과를 내겠다고 한 만큼, 올해는 이들 분야가 도장에서 총력전을 펴는 전략산업군으로 떠오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훈 기자

새롭게 바뀌고 있는 도의회 현수막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10일 앞둔 8일 전북도의회 입구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다.

국식클 식품테마파크 조성 '박차'

익산시, 식품문화혁신센터 구축 등 국비 총 374억 확보 제조 중심 단순 산단서 생산·전시·체험·쇼핑 등 기능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 예산 374억원을 확보하며 식품푸드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에 234억원과 '농식품분야 메타버스가산 기술실증 지원'에 140억원 등 총 37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K-푸드파크의 미중용 역할을 하게 될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389억원(국비 234억원)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융복합 식품문화 거점 공간 및 홍보·판매·교육·기업지원·체험공간 등이 포함된 핵심 시설을 조성해 문화적인 요소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할 농식품분야 메타버스가산 기

술실증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80억원(국비는 140억원)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농식품분야 메타버스가산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식품 제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기술표준화를 지원하고, 가상세계에서 비즈니스 통합관리 지원을 수행하는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급변하는 식품산업에 대응하고 식품 6차 산업화를 통한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반의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하여 글로벌 식품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올해 말산업 육성 지원 확대

도, 기반 구축·승마인구 저변 확대 등 3개 분야 총 47억 투자 안전한 승용마 생산·유소년승마단 육성·말산업인력 양성 등

전북도가 도내 말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구축, 승마인구 저변확대, 전문 인력양성 3개 분야에 47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산업은 환경친화적이며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장애인 재활 등 사회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이다.

국내 승마 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에 따라 말 생산확대 말산업 발전을 토대로 농촌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 지원에 힘써 오고 있다.

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23억원을 투자해 소규모 농촌형 승마시설 개선, 승용마 조련·번식, 승마장(농가) 시설개선을 지원해 승마시설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18억원을

투자해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체험 및 승마인구 도내 유입을 위한 농촌관광 승마를 확대 추진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전대학, 남원 경마축산고, 장수 한국마사고 등 도내 전문인력양성기관(3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승마지도사, 조련사 등 말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희선 전북도 축산과장은 "아직 국내 승마산업이 초기단계이지만 전북도가 자연과 함께하는 승마체험·힐링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농어촌 관광과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객 확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작년 전북에서만 56만7659건 119 신고 접수

현장출동 신고, 전체의 47.6%

지난해 전북에서만 56만여건의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5.5초마다 한 번씩 구조구급이 필요한 도민들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119신고는 모두 56만7,6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66만 1,878건)에 비해 14.2%(9만4,219건) 줄어든 수치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재와 구조·구급, 그리고 민원출동과 같은 현장출동 신고가 전체의 47.6%인 27만 535건이었으며, 의료 안내와 민원상담은 15만4915건(27.3%)이었다. 무응답·오접속은 25%인 14만2,209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주시로 총 11만3,030건이 접수됐다. 뒤이어 익산시(6만5,596건)와 군산시(6만1,615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군 단위 지역 중에는 완주군이 3만 2,7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뉴시스

장수군

역사를 배우고 생태와 교감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을 즐기다

금강첫물 뜨거운 봄샘 생태관광지

NAVER 장수군 검색 DdM 장수군